

남편을 호스피스에서 떠나보내시고 또다시 아들을... 창원파티마병원

환자 소개

<개인정보>

- 입원 초기 면담을 통한 정보:
정보제공자-남동생(남/43)
- 성명: 이○○(M/46) Lung Ca.
- 입원 경과: 16년 11월 폐암 진단(부산○○병원) 받고, 16년 11/28~12/8 SVC syndrome 진단으로 항암, 방사선 치료하였으나 진행소견으로 17년 8월 치료 효과 없었으며 다리 통증 전신 기력저하 심화되어 본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전원 음

<입원 시 상태>

- ECOG: 3점
- 의식: Alert
- 식이: 섭취량 저하
- 활력 징후: 정상 범위
- 신체 검진: 양팔, 양하지 부종 있음, 복부 단단함
- 통증: NRS 7점(우측 하지 저린 듯한 통증 있으며 골반 방사통 있음)

진료 부분

<병력>

- 2016. 11. 폐암(부산대 H), 과거 특이 질환 없음
- 2017. 9. 22. 호스피스 병동 입원

<주 증상에 따른 진료과정>

1. 통증

(사정)

- 지속적으로 통증 호소
- 우측 하지 저린 듯한 통증 호소
- 골반까지 방사통 있음
- 돌발성 통증 빈도 증가
- (치료계획)
- 통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함
- 평균 통증 점수 및 돌발 통증의 빈도, 강도

를 고려하며 진통제 조절

- 마약성 진통제 수액에 혼합하여 지속적 주입 유지함
- 돌발 통증 시 필요하면 사용 진통제 투여하도록 함
- (반응)
- 통증 호소에 따라 약물을 증량하였으나, 돌발성 통증 지속되어 필요시 약물 주입하여 경과를 관찰 했으며, 입원 기간이 계속되면서 통증 호소가 경감되며 통증 조절 안정됨

2. 불안

(사정)

- 현재 상태에 대한 불안감 있음
- 불안, 우울감 있으며 행동 변화 자주 관찰됨
- 간헐적으로 폭력적이며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음

(치료계획)

-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을 통해 심리 상담 연계
- 수녀님을 통한 영적 돌봄
- 친숙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며 보호자 지지하도록 설명함
- 항우울 약제 투약 유지함

(반응)

- 불안감 경미하게 지속되나, 현재 불안감에 대해 말로 표현함
- 호스피스 팀원 및 가족(남동생) 연계하여 정서적 지지함

간호 부분

<상태 사정>

- Mental: Near Alert mentality
- ECOG: 3점
- 욕창: Coccyx site 2x3cm(G2)
- 식사: 2주전부터 식이 섭취량 불량함

<환자 상태 사정>

- 통증: 우측 하지 저린 듯 통증 있으며 골반 방사통 있음
- 배변: 2주 전 부터 경구 식사량 저하로 배변 못 봄
- 배뇨: 자가 배뇨 가능
- 수면: 1주 전부터 불면 심해져 2~3일간 수면 하지 못했다고 함

<간호학적 진단>

진단 1: 악성종양과 관련된 통증

(사정)

- 주로 허리와 오른쪽 다리 통증 호소함
- PRN 진통제 평균 10~12회/일 투여됨
- 돌발성 통증 시 NRS 5~6점
- 진통제 투여 30분 후 통증 조절됨

(계획 및 중재)

- 통증의 심리적 악화요인과 완화요인을 사정

한다.

- 통증의 느낌을 말로 표현하도록 교육한다.
-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다.
- 심리적, 정서적 지지한다.
- 통증이 있을 시 즉시 표현하도록 한다.

(평가)

- 진통제 투여 후에도 통증 지속되어 진통제 용량 증량함
- NRS 1점으로 감소됨
- 안정된 모습 보임
- 통증 있을 시 즉시 간호사에게 알림

진단 2: 폐종양으로 인한 활동 지속성 장애

(사정)

- '가슴 전체가 답답하고 힘들어'라고 말함
- 호흡곤란으로 침상에만 있는 모습 보임
- 침상에 주로 앉아있으며 편안히 누워있기 힘들어함

(계획 및 중재)

- 호흡곤란 양상을 사정함
- 체위변경의 중요성을 설명함
- 규칙적인 휴식을 하도록 교육함
- 산소공급(5L) 유지함

(평가)

- 산소공급 유지함
- 호흡이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함
-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함

진단 3: 상황적 위기와 관련된 죽음 불안

(사정)

- 불확실한 예후에 대한 불안감 있음
 - 환자, 보호자 현재 상태에 대한 병식이 있으나, 현재 상태에 대해 완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 함
- (계획 및 중재)
- 종교적 돌봄으로 불안감을 표현하도록 영적 지지 제공한다.
 - 다학제간 지속적 면담으로 정서적 지지한다.
 - 호스피스 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감정표현을 공감 해준다.

(평가)

- 대세 받음, 기도문을 외우는 모습 보임
- “골베가 많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모습 보임
- 대세 후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표현함

- 봉사자와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상주하여 정서적 지지함

진단 4: 불안과 관련된 수면양상장애

(사정)

-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잠들기 어렵다고 말함
 - “답답해서 잠이 깨요”라 말하며 깊은 수면 못 함
- (계획 및 중재)
- 수면 양상 사정하며 수면 방해요인을 말로 표현하도록 함
 - 빛, 소음, 감각 자극을 줄여 줌
 - 불면증으로 인한 불안감에 손을 잡아주며 이야기를 경청함
 - 처방된 약물 복용에 관해 설명 함

(평가)

- 자기 전 약 복용 후 수면 유지하나, 자주 깨는 모습 보임
- 소음 없으며 소등하여 수면 환경 조성됨

사회복지 부분

<개인력>

- M/46, 학력: 고졸, 종교: 무->천주교
- 주거형태: 자가
- 직업: 용접공-하수도 공사
- 결혼 상태: 미혼
- 경제력: 현재 무직으로 소득 없음, 보호자(남동생)가 병원비 조달함
- 의료보장: 건강보험

<가족력>

- 가족 구성: 모, 남동생(주 보호자), 부(암으로 본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
- 질병에 대한 반응: 남동생은 말기 및 호스피스에 대해 인지하나 모친은 큰아들의 암 진단

- 단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 심한 상태로 3개월 전부터 우울증으로 병원 입 퇴원 중임
- 가족이 원하는 것: 고통스럽지 않은 편안한 임종을 하길 원한다.
- 주거환경: 모, 남동생과 함께 거주 중이나 모친과 관계가 좋지 않으며 모친 또한 우울증으로 입 퇴원 반복 중인 상황으로 추후 함께 거주 힘든 상황임
- 임종 계획: 임종 면담을 통해 추후 계획에 대해 상의함.

<사정>

(문제 사정)

- 불안, 불면, 우울, 자살 충동, 공격적이고 폭

- 력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하기도 함
- 경제적 어려움, 간병할 가족이 없음.
- 절대자에 대한 믿음 없음
- 환자 및 가족적 측면: 작년 12월 아버지께서 위암으로 사망하신 이후 가족(어머니, 남동생)이 허탈한 상태에서 환자의 암 진단으로 불안감 고조되어 있었음
- 개인위생 관리 어려움
(강점 사정)
- 가족: 남동생이 환자의 상황에 대해 많이 안타까워하며 지지하려 함
- 환경: 호스피스팀원이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환자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함
- 상황: 환자 본인이 천주교 세례를 원하여 원내 세례 및 종교 활동 가능함

<개입>

- (영적 지지 연계)
- 세례 진행: 막시밀리안 콜베로 대세 시행함

- 지속적인 원목 수녀님 방문을 통해 정서적 지지함
- 봉사자와 함께 교리공부, 기도문 읽으며 영적 믿음에 의지함
- 가족 상담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 환자가 느끼는 우울, 불안감에 대해 면담하며 정서적 지지함
- 청결 상태 유지를 위해 목욕 및 세발 자원봉사자 연계하여 개인위생 관리 유지하도록 함
- 이발을 위해 미용 봉사자 연계 함
- 다인 간호시스템으로 보호자의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나 간병 여건이 되지 않아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와 연계함
(장례준비 도움)
- 사전에 가족들과 장례예절 관련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임종 상담 시행함
- 장례식장 선정, 영정사진 준비, 종교에 따른 장례절차, 상조회 가입 여부 확인
- 사별가족 돌봄 안내(편지, 전화, 모임), 필요 서류 상담 및 안내문 제공.

원목 부분

<환자 사정>

말기 섬망으로 본인의 의식이 변화되는 것(병료-혼돈)에 대한 불안감이 심하며, 본인의 의식변화가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고 말함. 두 시간 동안 오열하며 죽여 달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 보였고, 주변의 물건으로 자해하려는 모습이 나타나 진정제 투여 후 안정됨

1. 환자의 정신 심리적 상태

심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예민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

며 현재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상실감이 큰 상태임

2. 영적인 상태

부친이 1년 전 호스피스에서 천주교 세례를 받고 임종하셨다며 환자도 대세를 원함.

<영적 돌봄 계획 >

1. 용서와 화해를 위한 영적 돌봄

처음 방문 시 남동생이 곁에 있었으며 눈을 반쯤 뜬 채 불분명한 소리로 동생에 대해 미

안하고 동생에게 잘하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며 정서적 불안을 보였다. 하지만, 동생은 환자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등 둘 사이의 긴장감이 느껴지며 서먹해 보였다. 남동생과 환자가 손을 잡도록 하며 조용한 환경에서 기도하며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처음 환자와 남동생의 사이가 아주 서먹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도 남동생을 기다리고, 남동생 또한 환자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이 자주 있었다. 지속적 방문을 통해 짧은 기도를 통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 주었다.

#2 죽음 수용과 희망을 위한 영적 돌봄

아버지께서 암으로 투병하시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1년 전 즈음 천주교 세례를 받고 임

종하셨다며 남은 시간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시며 대세를 원했다. 매번 병실에 방문했을 때마다 환자의 내면의 아픔을 들어주고, 기도를 통해 영적 지지를 통해 환자의 불안감을 가라앉히도록 하며 지지했다. 대세를 받고 죽음을 차분히 받아들이고 마음 편안히 하늘로 가고 싶다고 표현하며 기도, 교리공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간호사, 봉사자, 사회복지사, 남동생이 참여하여 콜베라는 이름으로 천주교 대세(막시밀리안 콜베)주었다. 대세를 행함으로 환자에게 영적 지지를 해주었고 선물로 ‘자비의 예수’ 액자를 건네주었고 액자를 가슴에 안고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라 말하며 미소 지으며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자원봉사자 부분

무표정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는 젊은 남자 환자가 있었다. 말기 환자가 다들 병마와 싸우느라 표정이 없고, 기운이 없지만 이분은 유독 외롭고, 슬프고, 다가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환자였다.

그분은 이00 넘 이셨고, 종교는 없다고 하셨다. 얼굴에는 혈색이 없고 입술은 말라 있고,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어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에 환자에다가 기도해 주겠다고 말씀드리며 종교가 있지 않으셔서 거부감을 느끼실까봐 짧은 기도를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고 환자의 표정을 보았는데 창백하고 아무 표정이 없던 얼굴에서 숨을 깊이 내쉬며 말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부터 환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하려 했다.

환우의 아버지가 지난해 12월쯤에 호스피스에서 돌아가셨다고 했다. 아버지가 계셨던 병실과 같은 곳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고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미어진다 고 하셨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환자는 말을 이어나갔다. 단지 너무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환자에게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환자가 이렇게 솔직하고 엄청난 이야기를 하셔서 듣고는 너무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계셨던 병실에 아들이 같은 상황이 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있다는 사실이 말이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지만 현재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환자는 알고 있는 듯 자신보다는 가족이 더 걱정이라고 하셨다.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고 걱정이 많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마침 보호자가 한 분 걸어서 병실로 들어오셨는데 환자분의 남동

생이라고 하셨다.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환자가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보호자께서 아버지에 이어 형님까지 암으로 투병 중이라 너무 힘들고, 형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병원을 오는 발걸음이 무겁다고 하셨다. 병원에 계속 있을 수 없는 것이 어머니께서도 아들의 병에 놀라셔서 마음의 병을 얻어 병원에 오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 어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하셔서 병원에 모셔다드렸다고 한다. 형도 동생도 곁혼하지 않아 다음 주부터 직장에 나가면 형이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셔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너무 착하고 선한 분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타까웠다.

남동생은 부탁하셨다, 자신이 없을 때 혹시 방문하게 되면 잘 봐달라고 하셨는데 너무 진실하게 느껴져 봉사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폈다. 다음번 방문에는 다리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 마사지는 원하지 않으셔서 어깨와 등을 살살 문질러 주었다. 환자는 아버지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다고 했다. 자신도 세례를 받고 싶어 했다. 그날 오후 원목 담당 수녀님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날부터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하며 적극적인 모습이 보였다.

다음날 환자의 생일을 위해 호스피스 팀원들이 다 함께 모여 생신 잔치를 했다. 너무 기뻐하셨고, 너무 행복하다고 표현했다. 오후에는 발 마사지를 부탁하여 흔쾌히 응해 주었다. 계속 말씀 주고받으며 웃으시기도 하며 지금까지 본 중 최고 상태인 것 같았다. 함께 기도하면서 성호경 굿는 연습도 함께 몇 번이나 하셨다. 대세를 받고 나서 마치 다시 태어

난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다. 환자와 좋은 추억들이 하나씩 쌓여 갈 때 즈음, 환자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지속되는 통증에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했다. 지속적인 약물 투여에도 전신으로 퍼지는 통증이 환자를 힘들게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의 의식이 혼미 상태였고, 섬망 증상이 심해 돌발적 행동, 폭력적인 행동이 보였고, 밤에는 깊은 수면을 하지 못해 뒤척이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봉사의 시작과 끝에 이분을 위해 침상에서 기도문을 읽고 성가를 부르며 환자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 노력했다.

어느덧 주말이 지나고 병원에 봉사를 위해 가보니 임종하셨다고 했다.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먹먹해지던지 한동안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마음을 다잡고 봉사자들과 조문을 갔다. 한적하고 조용한 빈소에 한 번 더 가슴 깊이 기도했다.

영원한 안식을 이루소서. 아멘

